

2026년1월 신차등록 현황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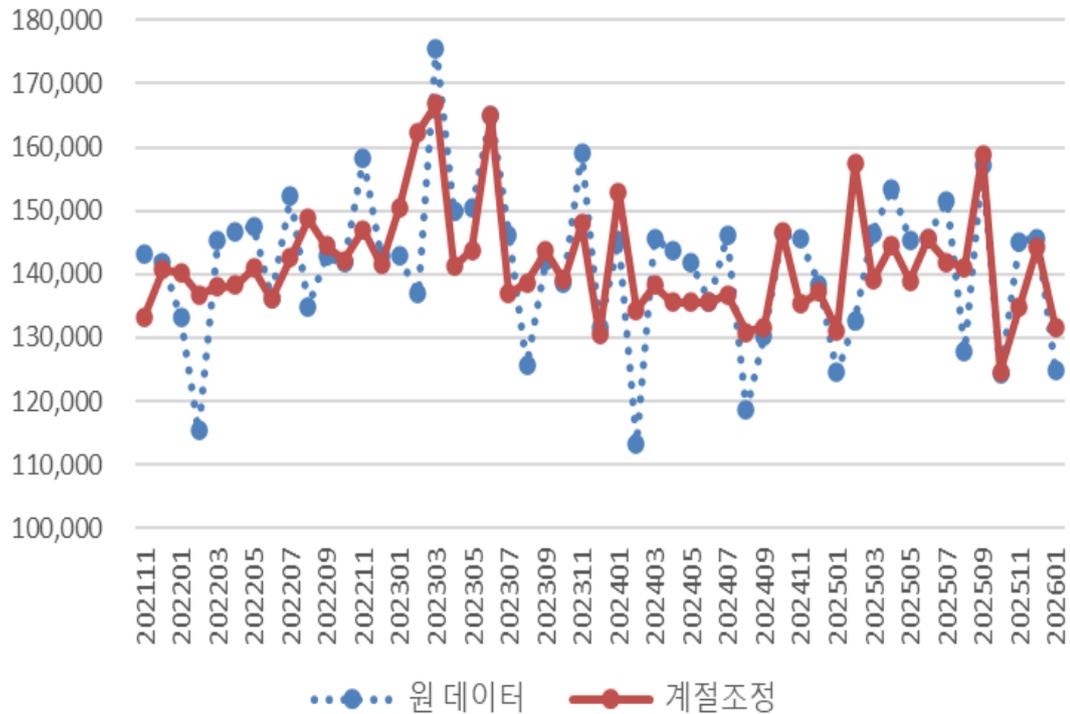


(사)전국자동차경매장협회
Korea Auto Auction Association

2026년 1월 한국 신차등록 현황 개요

1월 신차등록은 124,984대로써 전월대비 14.2% 감소하였다. 계절조정된 신차등록대수는 131,629대로써 역시 8.8% 감소하였다. 전년동월대비는 각각 0.4% 증가하여 1월의 감소가 추세적 특징이라기 보다는 계절적 변동임을 시사한다. <그림 1>은 2021년 11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신차 등록대수의 신차 등록대수의 계절조정된 값을 보여준다. 모든 수치는 승용과 상용을 포함한 전체 거래대수를 기준으로 한다.

<그림 1> 신차등록 월별 추세



자료: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정보처

<표 1>은 2026년 1월의 신차등록 현황을 요약한 것이다. 신차는 전월 대비 14.16% 감소했고, 전년 동기 대비로는 0.39% 증가하였다. 신차 수요가 계절적으로 12월보다 1월이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1월의 감소가 특별한 추세적 특징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국산차는 전월 및 전월동기대비 모두 감소했으나, 수입 신차가 전월 대비 24.55% 감소, 전년 동기 대비는 34% 이상 증가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전기차 인센티브 및 프로모션에 기인한 12월 일부 물량의 추세 회귀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월 대비 30% 이상의 증가를 유지함으로써 견조한 증가 추세를 유지하였다. 전기차(BEV) 역시, 전월대비 46.84% 감소하였다.

전년 동월대비 137.07% 증가하여 장기 추세선에는 여전히 견조한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 하이브리드 또한 전월대비 12.74% 감소하였으나, 전년동월대비 18.31% 증가하여 신차 시장의 주도 차종으로 포지셔닝 중이다.

<표 1> 2026년 1월 전체 산업 거래 개요

	전체	국산	수입	전기차 부문	
				EV	HEV
1월 등록	124,984	101,576	23,408	5,801	49,744
전월대비%	-14.16	-11.35	-24.55	-46.84	-12.74
전년동월대비%	0.39	-5.11	34.14	137.07	18.31

자료: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정보처

<표 2>는 2026년 1월 기준 국산 신차 판매 상위 30개 모델을 보여준다. 국산차 시장에서는 여전히 내연기관 차량이 Top 10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쏘렌토 하이브리드가 3개월 연속 1위를 기록한 점이 특징적이다. 반면 지난달 2위였던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7위로 하락해 눈길을 끈다. 그

랜저의 경우 내연기관 모델과 하이브리드 모델 모두 월평균 2,000~3,000대 수준을 유지하다가 11월과 12월에 4,000~6,000대 수준으로 급증한 뒤 다시 평균 수준으로 회귀한 흐름을 보인다.

이를 감안하면 11~12월 판매 급증은 연말 실적 목표 달성을 위한 밀어내기 판매와 퇴직 임직원 대상 할인 판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추정된다. Top 5 모델 중 쏘렌토 하이브리드와 카니발 하이브리드를 제외한 나머지 3개 모델이 모두 중소형 내연기관 차량이라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쏘렌토 하이브리드와 카니발 하이브리드의 산술 평균 취득가격이 4,300만 원을 상회하는 반면, 나머지 세 차종의 평균 가격은 2,200만 원을 밑돌아 뚜렷한 대비를 보인다.

과거에는 가격 수준에 따라 비교적 일관된 소비 패턴이 관찰됐으나, 최근에는 서로 다른 가격대에서 뚜렷한 수요 군집이 형성되는 양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소비 패턴의 분화는 향후 마케팅 전략 측면에서 보다 면밀한 분석과 대응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국내 신차 Top 30의 가중평균 가격이 12월 3700만원대에서 1월 3600만원대로 하락했음에도 물량 견인이 안되고 오히려 총 매출이 줄어든 점 또한 면밀한 분석과 전략을 요구한다. 계절적 요인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수입차가 가격을 낮추면서 수입신차 Top 30는 등록대수와 매출이 모두 증가했다는 점과 비교하면 면밀한 분석을 요하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표 2> 2026년 1월 신차 Top 30 모델 상세 (국산)

순위	모델명	11월	12월	01월	평균가격
1	쏘렌토 하이브리드 (HEV)	5,873	6,081	6,693	41,464,650
2	레이 (ICE)	3,275	4,100	4,820	16,970,228
3	아반떼 (ICE)	4,713	5,028	4,697	22,483,202
4	셀토스 (ICE)	4,274	5,011	4,335	25,472,549
5	카니발 하이브리드 (HEV)	3,095	3,611	4,305	46,102,625
6	스포티지 (ICE)	4,066	5,112	4,161	31,841,769
7	그랜저 하이브리드 (HEV)	3,199	6,009	3,567	44,290,300
8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HEV)	3,504	4,308	3,541	55,330,020
9	그랜저 (ICE)	2,867	4,449	3,112	38,328,021
10	G80 (ICE)	3,459	3,592	2,743	58,707,145
11	쏘나타 (ICE)	3,152	2,897	2,670	28,901,161
12	GV70 (ICE)	3,389	3,449	2,658	53,748,044
13	K5 (ICE)	3,154	2,102	2,588	25,514,760
14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HEV)	1,972	2,566	2,498	36,047,438
15	투싼 (ICE)	2,709	2,553	2,456	29,253,461
16	쏘렌토 (ICE)	3,740	3,109	2,299	38,266,594
17	GV80 (ICE)	2,934	2,697	2,270	70,637,841
18	싼타페 하이브리드 (HEV)	3,413	2,929	2,208	40,370,652
19	코나 (ICE)	1,533	2,091	2,147	26,528,551
20	모닝 (ICE)	1,849	1,303	2,109	15,772,357
21	투싼 하이브리드 (HEV)	2,501	2,336	2,047	33,139,472
22	니로 하이브리드 (HEV)	1,311	1,334	1,778	27,310,967
23	콜레오스 하이브리드 (HEV)	2,188	2,456	1,764	39,219,671
24	팰리세이드 (ICE)	1,118	1,086	1,596	50,419,361
25	K8 하이브리드 (HEV)	1,617	1,359	1,365	41,060,293
26	베뉴 (ICE)	1,225	1,914	1,297	20,312,259
27	캐스퍼 (ICE)	1,072	1,554	1,246	18,363,965
28	카니발 (ICE)	1,220	1,406	1,242	41,155,878
29	코나 하이브리드 (HEV)	652	749	888	30,489,865
30	싼타페 (ICE)	1,022	844	881	37,489,557
Top 30 총 등록대수		80,096	88,035	79,981	
TOP 30 가중평균 가격 (천원)		37,166	37,164	36,242	
Top 30 매출액 (10억원)		2,977	3,272	2,899	

자료: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정보처

<표 3> 2025년 12월 신차 Top 30 모델 상세 (수입차)

순위	모델명	11월	12월	01월	평균가격
1	쏘나타 (ICE)	1,548	1,205	1,330	23,853,158
2	Mercedes-Benz E 200 (HEV)	1,661	1,919	1,209	60,187,428
3	BMW 520i (HEV)	1,062	1,110	1,162	61,904,475
4	Model Y Premium RWD (EV)	-	-	1,135	45,037,797
5	Mercedes-Benz E 300 4MATIC (HEV)	882	1,280	783	76,962,835
6	Lexus NX350h (HEV)	35	4	734	60,680,518
7	BMW X3 (HEV)	646	585	690	67,025,362
8	BYD SEALION 7 (EV)	680	642	656	37,895,732
9	BYD ATTO3 (EV)	444	460	634	27,964,826
10	BMW 530i xDrive (HEV)	514	607	532	74,287,406
11	Lexus ES300h (HEV)	649	722	514	62,421,790
12	Model Y Premium Long Range AWD (EV)	-	-	425	55,762,824
13	BMW 320i (HEV)	497	481	400	47,781,500
14	Mercedes-Benz GLC 300 4MATIC (HEV)	347	488	395	70,522,532
15	Volvo XC60B5 AWD (HEV)	588	661	377	63,941,910
16	SCENIC E-TECH ELECTRIC (EV)	18	305	376	38,545,745
17	BMW X5 xDrive40i (HEV)	298	282	303	110,452,805
18	BMW X7 xDrive40i (HEV)	267	303	300	129,912,000
19	Mercedes-Benz GLC 300 4MATIC Coupe (HEV)	301	427	290	73,199,310
20	BMW 740i xDrive (HEV)	271	250	243	136,700,412
21	Mercedes-Benz GLE 450 4MATIC (HEV)	189	252	234	110,599,145
22	BMW X6 xDrive40i M Sport (HEV)	206	178	220	109,548,182
23	BMW X4 xDrive20i (ICE)	309	311	208	61,662,981
24	BMW 740d xDrive (HEV)	133	102	199	120,794,472
25	BMW X5 xDrive50e (HEV)	128	139	181	115,408,840
26	Volvo XC40B4 AWD (HEV)	257	297	167	46,710,180
27	A5 40 TFSI quattro (ICE)	146	210	163	52,224,540
28	Mercedes-Benz E 450 4MATIC (HEV)	213	195	160	100,298,750
29	Model X AWD (EV)	3	98	160	128,041,875
30	Volvo XC90B6 AWD (HEV)	137	122	153	85,253,595
Top 30 총 등록대수		10,881	12,430	13,003	
TOP 30 가중평균 가격 (천원)		69,434	69,119	66,972	
Top 30 매출액 (10억원)		792	888	903	

※ 쏘나타 (ICE)는 중국산 LPG이며, 수입차 합계 분석에서는 제외함

자료: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정보처

<표 3>은 1월 기준 수입 신차 상위 30개 모델을 보여준다. 중국 생산 물량으로 수입되는 쏘나타가 1위를 차지했으나, 본 분석에서는 이를 제외하였다. 수입차 시장은 Top 10 전체를 전기차와 하이브리드가 지속적으로 차지하였다. 특히 국산차의 경우 전기차가 Top 30에 단

한 개 모델도 포함되지 않은 반면, 수입차는 전기차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Top 10에 순수 전기차 모델이 두 개 포함되어 뚜렷한 대비를 나타냈다. 12월 세 개였던 전기차 모델이 1월 두 개로 감소한 것은 테슬라 Model Y의 트림 재편에 따른 일시적 조정으로 판단되며, 전체적인 전기차 강세 흐름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한편 12월 17위로 내연기관차(ICE) 가운데 유일하게 Top 20에 포함되었던 BMW X4가 23위로 하락하면서, 수입차 시장은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중심 구조가 더욱 공고해지는 모습이다.

12월까지 시장 1위를 유지하던 Model Y RWD가 순위에서 제외되고, 대신 새롭게 선보인 Model Y Premium이 기존 모델 대비 약 400만 원 낮은 가격으로 출시되어 4위(Premium)와 12위(Long Range)를 기록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초기 물량 공급과 운영 프로세스 정착 과정에서 출고가 원활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추가적인 판매 확대 가능성도 존재한다. 원화 약세 환경에서도 가격 인하를 단행했다는 점은 테슬라의 한국 시장에 대한 전략적 침투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다.

국산차는 가격 인하에도 불구하고 Top 30 기준 등록 대수와 매출이 모두 감소한 반면, 수입차는 평균 3.1%의 가격 인하와 함께 매출액 1.7%, 등록 대수 4.6% 증가를 기록했다는 점은 국내 완성차 업체가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국산차와 수입차 Top 30의 가중평균 가격 비율이 12월 1.86배, 1월 1.85배로 거의 유사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격 축소에 따른 간섭 효과 보다는 모델별 소비자 가격 민감도 차이, 또는 수입차 소비자의 구매 여력 확대에 따른 구조적 수요 이동 가능성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해 보인다.

<표 4>는 지역별 국산 신차 판매 대수와 비중을 제시한다. Top 30 전체 판매의 39.5%를 수도권이 차지했으며, 영남권과 호남권이 각각 26.1%와 12.1%로 그 뒤를 이었다. 충청권은 9.6%로 호남권을 근접하게 추격하는 구조를 보였다. 특히 제주도가 전체의 10%를 차지하며, 인구 대비 판매 비중이 수도권의 약 14배에 달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관광지 특성상 렌터카 수요가 크고, 주요 자동차 금융사의 사용 본거지 등록이 집중된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판매 비중 패턴을 보면 지역별 선호 차이가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난다. <표 4>에서 무늬로 표시된 부분은 각 지역별 평균 판매 비중을 상회하는 모델을 의미한다. 수도권은 Top 30 전반에 걸쳐 고르게 높은 판매 비중의 모델이 분포하는 특징을 보였다. 호남권 역시 수도권과 유사한 패턴을 나타냈다. 반면 영남권과 충청권은 수도권과 차별화된 일부 모델에서 판매 강세가 관찰되었다. 즉, 수도권과 호남권이 상대적으로 유사한 소비 구조를 보이는 반면, 영남권과 충청권은 또 다른 군집을 형성하는 양상이다. 이러한 지역별 소비 구조 차이는 국내 완성차 업체의 지역별 판매 전략과 물량 배분 정책 수립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표 4> 2026년 1월 국산 신차 Top 30 지역별 판매비중

순위	모델명	판매대수						비중					
		수도권	영남	충청	호남	강원	제주	수도권	영남	충청	호남	강원	제주
1	쏘렌토 하이브리드 (HEV)	2,981	1,728	571	912	156	345	44.5	25.8	8.5	13.6	2.3	5.2
2	레이 (ICE)	2,013	1,250	396	651	122	388	41.8	25.9	8.2	13.5	2.5	8.0
3	아반떼 (ICE)	1,692	1,290	454	720	117	424	36.0	27.5	9.7	15.3	2.5	9.0
4	셀토스 (ICE)	1,589	1,135	567	601	139	304	36.7	26.2	13.1	13.9	3.2	7.0
5	카니발 하이브리드 (HEV)	1,997	961	379	537	67	364	46.4	22.3	8.8	12.5	1.6	8.5
6	스포티지 (ICE)	1,808	1,133	441	540	118	121	43.5	27.2	10.6	13.0	2.8	2.9
7	그랜저 하이브리드 (HEV)	1,487	839	351	610	78	202	41.7	23.5	9.8	17.1	2.2	5.7
8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HEV)	1,553	937	289	336	68	358	43.9	26.5	8.2	9.5	1.9	10.1
9	그랜저 (ICE)	1,149	938	307	376	80	262	36.9	30.1	9.9	12.1	2.6	8.4
10	G80 (ICE)	1,078	764	199	292	38	372	39.3	27.9	7.3	10.6	1.4	13.6
11	쏘나타 (ICE)	1,129	628	290	362	60	201	42.3	23.5	10.9	13.6	2.2	7.5
12	GV70 (ICE)	1,191	726	216	208	57	260	44.8	27.3	8.1	7.8	2.1	9.8
13	K5 (ICE)	1,095	522	273	336	68	294	42.3	20.2	10.5	13.0	2.6	11.4
14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HEV)	1,010	654	201	409	63	161	40.4	26.2	8.0	16.4	2.5	6.4
15	투싼 (ICE)	882	750	279	252	79	214	35.9	30.5	11.4	10.3	3.2	8.7
16	쏘렌토 (ICE)	850	611	236	299	73	230	37.0	26.6	10.3	13.0	3.2	10.0
17	GV80 (ICE)	909	556	168	223	48	366	40.0	24.5	7.4	9.8	2.1	16.1
18	싼타페 하이브리드 (HEV)	850	689	171	267	40	191	38.5	31.2	7.7	12.1	1.8	8.7
19	코나 (ICE)	807	636	295	241	92	76	37.6	29.6	13.7	11.2	4.3	3.5
20	모닝 (ICE)	798	529	264	315	117	86	37.8	25.1	12.5	14.9	5.5	4.1
21	투싼 하이브리드 (HEV)	784	620	176	284	42	141	38.3	30.3	8.6	13.9	2.1	6.9
22	니로 하이브리드 (HEV)	800	393	174	192	40	179	45.0	22.1	9.8	10.8	2.2	10.1
23	클레오스 하이브리드 (HEV)	835	437	222	163	43	64	47.3	24.8	12.6	9.2	2.4	3.6
24	팰리세이드 (ICE)	682	397	159	154	47	157	42.7	24.9	10.0	9.6	2.9	9.8
25	K8 하이브리드 (HEV)	522	282	113	187	14	247	38.2	20.7	8.3	13.7	1.0	18.1
26	베뉴 (ICE)	438	347	165	179	70	98	33.8	26.8	12.7	13.8	5.4	7.6
27	캐스퍼 (ICE)	177	263	84	139	13	570	14.2	21.1	6.7	11.2	1.0	45.7
28	카니발 (ICE)	516	298	82	108	20	218	41.5	24.0	6.6	8.7	1.6	17.6
29	코나 하이브리드 (HEV)	311	322	85	95	26	49	35.0	36.3	9.6	10.7	2.9	5.5
30	싼타페 (ICE)	375	227	71	68	39	101	42.6	25.8	8.1	7.7	4.4	11.5
							평균 비중	39.5	26.1	9.6	12.1	2.6	10.0

자료: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정보처

제주도는 타 지역과 확연히 구분되는 소비 패턴을 보였다. 전국 평균 선호와 무관하게 중대형 내연기관 차량의 판매 비중이 두드러졌다. G80 내연기관과 GV80 내연기관 모델은 각각 전국 판매 비중의 13.6%와 16.1%를 제주에서 차지했으며, K8 하이브리드와 카니발 하이브리드도 각각 18.1%와 17.6%를 기록했다.

특히 캐스퍼 내연기관 모델은 45.7%로 전국 최고 비중을 나타냈다. 이러한 현상은 개별 소비자 취향이라기보다 기업 플릿 물량과 자동차 금융사의 사용 본거지 등록 효과가 결합된 구조적 수요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표 5>는 지역별 수입 신차 판매 대수와 비중을 제시한다. Top 30 전체 물량과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이 영남권이라는 점이 두드러진다. 수도권 판매가 5,259대(36.1%)인 반면, 영남권은 6,882대(48.3%)를 차지하였다. 이는 국산차의 지역별 판매 구조와 뚜렷한 대비를 이루는 부분으로, 국산 및 수입차 업체 모두에게 중요한 전략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호남권은 Top 30 전 모델에 걸쳐 비교적 고른 수요를 보였으나, 전국 시장 흐름에 영향을 줄 만큼의 비중은 제한적이었다. 강원과 제주는 각각 5% 미만의 비중을 보여 통계적 해석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다만 제주도에서 테슬라 모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 점은 향후 수입차 시장, 특히 전기차 시장 구도 변화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표 5> 2026년 1월 수입 신차 Top 30 지역별 판매비중

순위	모델명	판매대수						비중					
		수도권	영남	충청	호남	강원	제주	수도권	영남	충청	호남	강원	제주
1	쏘나타 (ICE)	725	327	105	117	36	20	54.5	24.6	7.9	8.8	2.7	1.5
2	Mercedes-Benz E 200 (HEV)	396	603	89	83	22	16	32.8	49.9	7.4	6.9	1.8	1.3
3	BMW 520i (HEV)	418	628	7	83	13	13	36.0	54.0	0.6	7.1	1.1	1.1
4	Model Y Premium RWD (EV)	262	722	2	-	-	149	23.1	63.6	0.2	0.0	0.0	13.1
5	Mercedes-Benz E 300 4MATIC (HEV)	251	404	43	45	20	20	32.1	51.6	5.5	5.7	2.6	2.6
6	Lexus NX350h (HEV)	237	409	32	35	16	5	32.3	55.7	4.4	4.8	2.2	0.7
7	BMW X3 (HEV)	276	345	5	42	18	4	40.0	50.0	0.7	6.1	2.6	0.6
8	BYD SEALION 7 (EV)	223	319	17	57	31	9	34.0	48.6	2.6	8.7	4.7	1.4
9	BYD ATTO3 (EV)	255	285	31	41	12	10	40.2	45.0	4.9	6.5	1.9	1.6
10	BMW 530i xDrive (HEV)	219	258	2	45	5	3	41.2	48.5	0.4	8.5	0.9	0.6
11	Lexus ES300h (HEV)	149	293	31	31	8	2	29.0	57.0	6.0	6.0	1.6	0.4
12	Model Y Premium Long Range AWD (EV)	79	207	-	1	-	138	18.6	48.7	0.0	0.2	0.0	32.5
13	BMW 320i (HEV)	165	209	7	15	2	2	41.3	52.3	1.8	3.8	0.5	0.5
14	Mercedes-Benz GLC 300 4MATIC (HEV)	126	213	18	24	4	10	31.9	53.9	4.6	6.1	1.0	2.5
15	Volvo XC60B5 AWD (HEV)	197	134	10	25	6	5	52.3	35.5	2.7	6.6	1.6	1.3
16	SCENIC E-TECH ELECTRIC (EV)	189	79	57	26	19	6	50.3	21.0	15.2	6.9	5.1	1.6
17	BMW X5 xDrive40i (HEV)	135	144	3	10	9	2	44.6	47.5	1.0	3.3	3.0	0.7
18	BMW X7 xDrive40i (HEV)	112	159	3	17	4	5	37.3	53.0	1.0	5.7	1.3	1.7
19	Mercedes-Benz GLC 300 4MATIC Coupe (HEV)	87	161	18	16	6	2	30.0	55.5	6.2	5.5	2.1	0.7
20	BMW 740i xDrive (HEV)	78	136	3	23	1	2	32.1	56.0	1.2	9.5	0.4	0.8
21	Mercedes-Benz GLE 450 4MATIC (HEV)	74	115	17	18	2	8	31.6	49.1	7.3	7.7	0.9	3.4
22	BMW X6 xDrive40i M Sport (HEV)	91	112	4	10	1	2	41.4	50.9	1.8	4.5	0.5	0.9
23	BMW X4 xDrive20i (ICE)	84	111	1	10	1	1	40.4	53.4	0.5	4.8	0.5	0.5
24	BMW 740d xDrive (HEV)	74	98	4	18	3	2	37.2	49.2	2.0	9.0	1.5	1.0
25	BMW X5 xDrive50e (HEV)	80	92	-	6	1	2	44.2	50.8	0.0	3.3	0.6	1.1
26	Volvo XC40B4 AWD (HEV)	71	73	4	12	4	3	42.5	43.7	2.4	7.2	2.4	1.8
27	A5 40 TFSI quattro (ICE)	84	39	16	20	3	1	51.5	23.9	9.8	12.3	1.8	0.6
28	Mercedes-Benz E 450 4MATIC (HEV)	43	81	10	20	2	4	26.9	50.6	6.3	12.5	1.3	2.5
29	Model X AWD (EV)	10	72	1	-	-	77	6.3	45.0	0.6	0.0	0.0	48.1
30	Volvo XC90B6 AWD (HEV)	69	54	6	13	7	4	45.1	35.3	3.9	8.5	4.6	2.6
산술 평균 비중								36.1	48.3	3.5	6.1	1.7	4.4

자료: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정보처

[요약 및 시사점]

1월 신차 등록 감소는 전월 대비 기준으로는 뚜렷했으나, 계절조정 수치와 전년 동월 대비 흐름을 함께 고려하면 추세적 위축이라기보다는 계절적 요인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차종 구조 측면에서는 명확한 변화가 관찰된다. 국산차 시장은 여전히 내연기관 중심의 판매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수입차 시장은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중심 구조가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 특히 전기차 비수기에도 수입차 Top 10 내 순수 전기차 비중이 유지되고, 전년 동월 대비 BEV 증가율이 100%를 크게 상회한다는 점은 전동화 수요의 구조적 확대를 시사한다.

가격과 수요의 관계에서도 국산차와 수입차 간 상반된 움직임이 나타났다. 국산차는 평균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Top 30 기준 물량과 매출이 동반 감소한 반면, 수입차는 가격 인하와 함께 물량 및 매출이 모두 증가했다. 이는 단순한 가격 경쟁력 문제라기보다는 브랜드 포지셔닝, 소비자 가격 민감도, 구매력 계층 차이 등 구조적 수요 특성의 차이가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특히 수입 전기차의 지속적인 상위권 유지와 가격 전략은 향후 중고차 잔존가치, 금융상품 설계, 물량 운영 전략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평가된다.

지역별 판매 구조 역시 전략적 의미를 갖는다. 국산차는 수도권과 호남권, 영남권과 충청권이 각각 유사한 소비 군집을 형성하는 반면, 수입차는 영남권 집중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제주도는 국산·수입차 모두에서 전국 평균과 차별화된 특수 수요 구조를 보였다. 이는 개인 소비보다는 플릿 및 금융사 사용 본거지 등록 효과가 크게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테슬라의 전략적 침투도 향후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별 수요 차이는 단순 판매 실적을 넘어 물량 배분, 차종 믹스 전략, 프로모션 설계, 금융상품 지역 전략 수립에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 가능하다.

(사)전국자동차경매장협회 산하

한국중고차유통연구소

연구소장	부소장 (운영총괄)	수석 객원연구원
조성봉	김원태	고석빈

이 분석 보고서 내용과 관련한 문의는 전화 상담은 불가하며 홈페이지에 [문의하기] 또는 이메일 info@aaa-korea.com으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